

“소금 다 여기있네”...해수부, 천일염 유통업체 현장점검

매점매석 우려 예방·수입산 포대 같이 방지 차원
 “전년도 유통량과 비교해 매점매석 의심시 조치”

“전년도 유통 물량 대비 150%를 가지고 있으면 천일염 매점매석이 의심된다고 봅니다.” 3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한 소금 유통 업체.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점검을 나온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창고 곳곳에 쌓여있는 천일염 포대들을 바라보며 이력을 조사했다. 이곳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소금의 양은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산 정제염을 모두 포함해 약 15만t. 이중 20kg들이 천일염 포대들은 플라스틱 화물 운반대에 켜켜이 쌓인 채 먼지를 맞고 있다. 생산년도는 15년 전인 2008년부터 지난해 까지 다양하다. 직원들은 천일염 포대마다 붙여진 QR코드를 통해 유통 이력을 확인하고 이곳 관계자에게 출처를 캐물었다.

이곳 관계자는 소금 유통 과정에서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지역 A유통 업체가 20kg들이 천일염 7000여 포대(14만여t)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현재 A업체 등 총 7곳이 천일염 등 소금을 맡기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곳 창고에 가장 많은 물량을 맡긴 A업체의 지난해 천일염 유통량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년도 유통량 대비 150%를 확보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점매석이 의심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수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고 시장 유통량이 줄었다는 내용, 수입산 포대같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이날 현장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천일염의 실제 시장 유통량이

유통 업체 보유량 대비 현저히 적을 경우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다. 다만 매점매석 단속을 시작한다는 정부 차원 고지가 없어 현재까지는 의심 업체마다 천일염 유통에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해수부의 현장 점검에 소금 유통 업체들은 천일염 직거래가 원활해 유통업체로 들어오는 물량이 줄어든데다, 현지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매점매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20kg들이 한 포의 현지 가격이 2만4000원 선에서 책정된 현재 상황에 운송비와 물류비 등을 모두 합쳐 창고로 들어올 때의 가격은 2만9000원으로 뛰어오른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소매 업체로 판매할 경우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어 포대당 500~1000원대 마진 밖에 남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금 유통업 관계자는 “가격 변동과 관계 없이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금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매점매석은 현재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가 천일염 유통 점검에 나선 3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한 소금 유통 업체에 지난 2021년 생산된 신안산 천일염 포대들이 놓여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과약된 천일염 유통 현장의 동향과 상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버스가 공짜’ 완도 군내버스 전면 무료 운행...전남서 처음

내일부터 군민이면 누구나 무료 탑승...요금통도 없애



완도군은 30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군내버스 전면 무료 운행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군내버스 전면 무료 운행 정책을 시행한다. 완도군은 30일 신우철 군수 공약사항인 ‘군내버스 무료 운행’을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와도 차별화된 정책이다. 완도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군내버스는 8개 업체 35대로, 6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 4만6000여 명 대비 65세 이상이 35%를 차지하는 만큼 군내버스는 자가운전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과 학생

들이 대부분 이용해 왔다. 이를 무료 운행으로 전환하면서 버스 이용객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기사들도 몸이 불편한 고령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는 수고로움을 덜어 시간 단축과 안전 운행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군내버스에서는 당장 요금통이 사라진다. 완도군은 무료 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또 군내버스 운송원가 지원을 위해 연간 8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게 돼 기쁘다”며 “무료 버스 운행이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공산주의자 정율성 기념 반대” 보훈단체 광주시청서 거센 반발

“중국 인민해방군가·북한 공산당 위한 조선 인민군 행진곡 작곡”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2개 보훈단체가 광주시청을 찾아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를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12개 보훈단체는 30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공산주의자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철회’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4·19혁명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5·18 3개 공법 단체 중 부상자회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율성은 중국을 위해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고 북한 공산당을 위해 조선 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다”며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수 많은 국민을 숨지게 하고 일천만의 이산가족을 양산한 한 북한군·중공군을 찬양한 공산군 응원대장의 기념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낭독을 마친 단체들은 광주시청에 정율성 공원 철회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사 출입구에서 가로 막히자 고성과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1시간 30분 동안 항의가 이어졌다. 단체는 거센 항의 끝에 광주시청 민원실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변용일기자

금·토요일 쉽다 홈페이지 i-honam.com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